

맹자는 "옛사람은 자식을 바꾸어 가르쳤다"고 했다. 그 이유인즉 아버지는 자식에게 사랑과 기대가 크기에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미련이고, 자식은 "아버지도 못하면서 나에게만 요구한다"고 반발을 하게 되어 결국 부모자식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감명을 말하는 것이며, 그 잘되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 속에는 사람은 완전하는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바람에서 드러난다는 것이겠다.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웅  
건국대 철학과 교수

### 자식사랑과 '하면된다' 정신

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 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김승연 회장 일가의 지나치리만큼 강한 가족애와 내리사랑이 그런 여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결국 빛나간 사랑, 잘못된 자식사랑이 일으킨 하나의 해프닝으로 취급되어 넘어가야 할 일일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잘못된 자식사랑이라는 한 마디 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기업의 회장 일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의 결여, 가족이기주의에 파묻혀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질서에 대한 존중의 식마저 그리도 쉽게 팽개쳐 버리는 재벌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심각한 병리현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즈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승연 회장의 납치폭행 사건을 보면, 위에서 한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 김승연 회장은 과연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 아들에게 나쁜 짓을 가르쳐려 했던 것일까? 만일 자신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태연히 아들에게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줬다면, 위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부정되고 말 것이다.

그 심각성은 김승연 회장이 그러한 폭행을 하면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 서도 드러난다. 그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해결이 무언가 '남자다운', '나아가 어떤 '멋져'인' 해결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김승연 회장의 머리

**불자의 눈**

### 비구니 스님들의 새로운 '위상'

중앙승가대 한국비구니연구소가 <한국비구니 명감>과 3권의 <한국비구니 수행담록>을 비롯해 모두 7권의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소식이다. 먼저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에 대한 깊은 연구가 빈약했던 한국불교 현실에서 이러한 책자와 자료집이 발간 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비구니 명감>은 570명의 근 현대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상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했고 3권으로 묶어진 <한국비구니 수행담록>은 327명의 비구니 스님 일대기를 7년에 걸쳐 정리했다니 그 내용의 풍부함과 사료적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자료집들도 현대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평가될 시절인연이 충분히 도래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조계종을 이루는 인적 근간은 4부대중 즉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다. 그 가운데 승단을 이루는 한 축이 비구니이다. 그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면모가 드러나는 것을 꺼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세간은 물론 승단에서도 높다.

이번 책자의 발간이 한국불교의 한 축인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에 큰 힘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동대 불교대학의 '백년대계'

동국대 불교대학이 '흔든'에 휩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불교대학의 체제를 변화시켜 새로운 발전의 코드를 확보하려는 학교측의 트랙제도 도입을 두고 학생과 교수진이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 동안 불교대학과 불교학의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 가운데 올해 새로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학교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개혁 차원에서 먼저 불교대학의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가 적지 않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에서 불교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다른 학교와 다를 수밖에 없다. 동국대학은 조계종 종립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태생적 책임감'마저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국대학의 불교학과는 한국불교학의 '대표주자'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직격탄 받아왔다.

때문에 불교대학의 개혁은 '학교의 정체성'과 '학과의 경쟁력'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틀 속에서 가능하다. 거기에 교수진의 연구 업적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과 종단과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 수립 등 산적한 과제들도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

기왕 불교대학의 비전을 고민하는 마당이라면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안 되도록 허심탄화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놓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 10.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선진교육을 책임질 만한 인격적 자질과 인권 감수성을 갖춘 교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수 할당제도의 교사들 때문에 전체 교사들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고, 특히 교사 개인의 종교편향성과 인권의식 결여로 인해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이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종교 갈등과 인권침해를 없애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학교장의 인권의식과 해결의지일 것이다. 사실 학교장의 의지만 확고하면 교육현장에서의 웬만한 종교인권 침해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내 종교 갈등은 문제의식이 부족한 학교장 스스로가 덮고 감추려는 경향 때문에 더 꼬이기도 한다.

더구나 학교장의 종교성향이 강하면, 공교육의 일선 책임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예 앞장서서 종교 강요와 차별을 부추기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 도봉구에 있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예를 들어 보자. 이 학교 김희철 교장은 2006년 9월 16일 전일제 제발 활동(CA) 대신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목사를 강사로 초청, 1, 2학년 학생 전체를 강당에 소집해 종교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강사는 개인신교식 '예배'를 진행 하고 "원회의 결과는 죽을 뿐"이라는 섬뜩한 내레이션을 함께 '사탄·미신·이교·불신·죄악' 등 불교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가 적힌 송판



특정종교의 강요는 학생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 학교장·교육부 등 종교인권 의지 중요...공동 책임의식 절실

발행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또 2006년 1월 1일 간제 신입 교사를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해 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누구나 나름대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당연히 본인이 져야 한다. 종교 관련

모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하다 못해 무지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미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는 권력을 휘두르고도 교장 스스로 무엇이 잘못 된 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 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전예방 차원이거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엄격한 행정지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학교를 감독하기보다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보다 소나기를 피해 가려는 객처럼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해 관심도 없고, 특히 종교인권 문제라면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자신의 종교와 연관 지어 의도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물론 교육부 관계자도 사건이 표면화 될 때마다 "국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지적은 한다. 그러나 소송 기능성의 원칙만 가지고 구제할 길이 열려 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임시전생이란 상황과 함께 우리 국민의 정서상 학부모가 자녀의 스승이나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사실을 짐짓 모른 채하는 구차한 책임회피에 다를 바 없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종교문제는 골치 아프다며 외면하거나 교사 개인이나 학교장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종교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인권침해 문제가 사법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국민이 기뻐할 곳은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과 교육부 아니겠는가. 어쩌면 감독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일부 종교사회의 종교관행을 더 심화시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에서의 종교 강요와 차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인식과 공동의 책임의식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 영인본 불교원서 보관본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책방 여시아문을 항상 이용해 주시는 스님,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불자님들의 곁에서 불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원서목록 영인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스님 및 불자님들의 문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보급합니다. 보급수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선착순 접수)

☎문의전화 : (02)2004-8219 (담당 : 박원범)

도 서 명	저 자 명	보관수량	가 격
望月佛敎大辭典(全10권)	望月信亨	절판	350,000
佛光大辭典(全8권)	臺灣佛光寺	절판	200,000
佛書解説大辭典(全14권)	小野玄妙	절판	350,000
新修大藏經 索引(全31권)		1	900,000
祖堂集索引(全3권)	柳田聖土	1	100,000
慧遠研究(全2권)	木村英一	1	50,000
高麗華嚴變相圖(고급한지인쇄본)		2	580,000
韓國近世佛敎百年史(全2권)		28	55,000
漢語大辭典		1	500,000
선문명승(불교문화연구원)	木村英一	1	200,000

##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국인들이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제4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하와이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아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간 : 7월 26일(목) ~ 8월 14일(화) (19박 20일)
- 참가비 :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1차 - 3월 15일 ~ 4월 20일까지  
2차 -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참가비 5% 인상)
- 장 소 :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 하와이 무량사
- 후 원 : (재)보덕학회
- 참가문의 : 박병용 팀장 02)720-1868 / 010-6318-1976
- 참 가 비 : 280만원(분납가능)

• 하와이캠프 홈페이지  
<http://hompy.buddhopia.com/homepy/hawaii>

**주요 프로그램**

1. 어학연수: 하와이주립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데이비드와 대니 선생님의 총 60시간 영어강의 및 현장체험
2.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춤 관람, 비숍박물관, 홀라소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3. 역사체험: 한인이민민의 사탕수수농장,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한국전쟁의 희생묘지 편지볼
4.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와이메하공원